

中國延邊 朝鮮族 自治州에서의 東醫壽世保元 解析에 對한 考察

崔 炳 *

I. 緒 論

中國에서 1920年 以前부터 近 五十年間은 民族醫組織形成 時期이다.¹⁾

醫療衛生은 主로 朝鮮族 民間東醫 및 그 醫書의 傳來와 本草醫, 鍼灸醫가 形成되고, 이때는 이미 朝鮮으로부터 매우 많은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等 經典著作과 《東方活套》等 民間醫書 및 《百症賦》等 鍼灸手抄本이 傳來되었다.

이 期間동안에 金九翬, 金陽洙로 代表되는 延邊朝鮮族 四象方醫學派가 形成되었고, 民族醫藥組織의 發展에 對해 큰 作用을 일으켰다. 延邊自治地區에서는 朝鮮族 民族醫藥 研究所를 設置하였고, 民族醫藥學 遺産을 發掘 收集한다는 立場에서 朝醫學 第一冊으로 四象醫學論을 編輯하여 整理하고, 四象醫學普及을 爲해 基礎를 다져놓았다.²⁾

東武 李濟馬의 四象說을 理解하는데는 形態學的 構造方法과 經學的方法이 있다고 李는 「李東武 四象說論考」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四象醫學原論」에서 四元構造的 統

一이라는 概念으로 四象原理의 構造的 樣相을 理解하려고 시도한바 있다.³⁾

이와같이 李濟馬의 思想과 學問을 理解하고자 하면 반드시 四象의 範疇에서 찾아야할 것이다.⁴⁾

때문에 論者는 朝醫學 四象醫學論이 東醫壽世保元의 原典에 忠實하게 그 基本思想을 把握하고자 했는지를 알아보기 爲해 本 考察을 하고자 합니다.

II. 方 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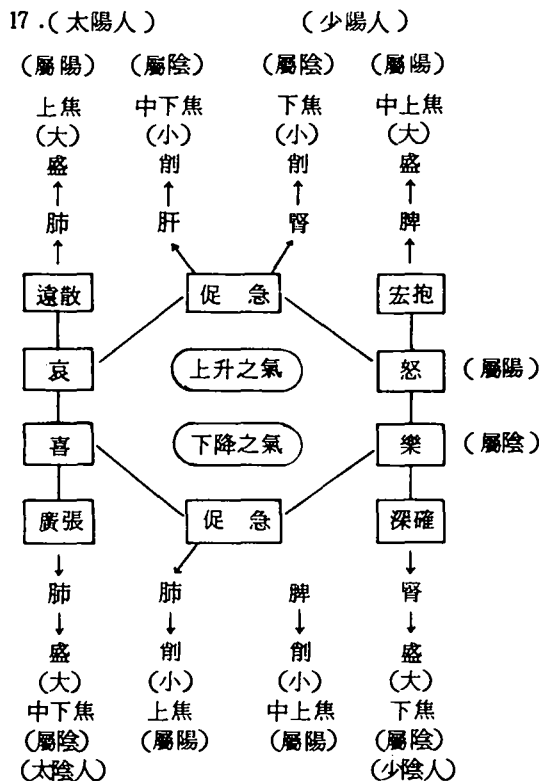
東醫壽世保元의 四象의 概念把握의 本質的 接近을 爲해 朝醫學 四象醫學論에서 四象醫學 診斷學과 四象藥物 및 方劑學, 四象臨床學, 四象醫學豫防保健論은 本 考察에서 省略하고, 東醫壽世保元의 原論이라 할 수 있는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의 原文과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四象基礎學, 四象醫學陰陽論, 四象醫學 四行論에서 提示되고 있는 內容들을 國內의 參老耆目과 比較하면서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 인수 한의원

III. 文獻資料

1. 天機有四 一曰地方，二曰人倫，三曰世會，四曰天時
2. 人事有四，一曰居處，二曰黨與，三曰交遇，四曰事務
3. 天時大同也 事務各立也 世會大同也 交遇各立也 人倫大同也 黨與各立也 地方大同也 居處各立也
4. 肺脾肝腎立於人也 頷臆臍腹行其知也 頭肩腰臀行其行也
5.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6. 心為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臍中 光明瑩徹 耳目鼻口無所不察 肺脾肝腎無所不付 頷臆臍腹無所不誠 頭手腰足無所不敬
7.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8. 頷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9. 耳好善聲 目好善色 鼻好善臭 口好善味。
10. 肺惡惡聲 脾惡惡色 肝惡惡臭 腎惡惡味。
11. 天時極蕩也 世會極大也 人倫極廣也 地方極邈也。
12.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13. 人之耳目口鼻天也，天知也。
14.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15.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
16.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怒情促急則 氣激而肝益削，太陽之臟局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少陽人 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所以成形脾大而腎小也。太陰人 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

陰之臟局所以成形於肝大而肺小也，少陰人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沈確則 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脾益削 少陰之臟局所以成形於 腎大而脾小也。



18.

	四	行	木	火	金	水
自然	四	季	春	夏	秋	冬
	四	氣	溫	熱	涼	寒
	四	生化過程	生	長	收	藏
人體	四	臟	肺	脾	肝	腎
	四	腑	胃 皖	胃	小 腸	大 腸
	四	官	耳	目	鼻	口
	四	情	哀	怒	喜	樂
	四	功能	呼	納	吸	出
	四	物	津→神	膏→氣	油→血	液→精
	四	精神	意·神	虛·靈	操·魂	志·魄
體	四	焦	上 焦	中上焦	中下焦	下 焦
	四	象	太 陽	少 陽	太 陰	少 陰

IV. 總括 및 考察

(1) 東醫壽世保元の 歷史的 視覺과 解釋

東武公은 人間의 疾病을 治療하는데 먼저 身體組織과 生理現象을 알아야 된다고 하여 人間形成論을 性命論부터 具體的으로 밝혀놓았다.⁶⁾

그러므로 이를 完全히 理解하고 그 原理를 잘 驅使한다면 人間의 形成이 宇宙運行과 一致된다는 實際的인 面을 알게 되고 四象醫學이 어디서 發生되었는가를 正確히 알 수 있는 것이다.

近問 四象醫學을 研究하는 者 가운데 基本바탕을 論한 四象醫學의 學術的인 根據를 無視하고 臨床的인 治驗에만 目的을 두고 있기 때문에 曲解하는 者도 많은 것이다.

李濟馬가 醫源論에서 말한 “黃帝內經은 醫學을 格致하는 宗主이며 苗脈의 出處라고 하여 五臟六腑와 經絡針法等, 其他 모든 病證과 修養之辨을 많이 啓發했다”을 들어 黃帝內經의 基本的인 研究없이 四象醫學을 研究할 수 없으며, 四象醫學은 內經原典에 바탕을 둔 根幹에 枝葉과 같은 獨創性과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고 吳⁶⁾는 말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に 記述한 李濟馬의 性命論의 骨格은 宇宙의 先天的 構造가 四가지 要素인 四象을 의미하고,⁷⁾ 이러한 宇宙의 四元構造가 天人相應으로 人體의 四象構造와 結合됨으로 複合四象構造를 完成⁸⁾하기에 이른다는 基調이다. <資料 1 ~ 14>

東武 李濟馬(1837 ~ 1900)의 著作年代를 比較해볼때, 格致藥의 獨行篇은 壬午年(1782年), 그의 歲數 45 때의 始初作品이며, 東元壽世保元の 出刊年代는 1901年으로 東武公의 末期에 쓰여진 作品인 것으로 數推解釋된다.

이로볼때, 東武公은 醫學者以前에 儒學者였

고, 知人의 方法으로 仁義禮知가 人間의 本性인 四端이라는 哲學으로 讀心術을 하였으며, 社會의 健康目標을 爲해 倫理·道德的 處世訓을 整然하게⁹⁾ 格致藥에서 論하였다.

格致藥에서 四象類型으로 定立된 東武의 哲學的·經學的 四象觀을 토대로한 諸概念들은 以後에 人間의 健康을 爲해 人體의 四象構造와 結合되어 東醫壽世保元の 著述로 이어진다. 東醫壽世保元の 理論的 基底에는, 이렇게 經學的인 世界가 갈려있기 때문에 李¹⁰⁾와 宋¹¹⁾은 東武四象說에 대한 理解의 接近을 爲해서는 形態學的·構造的 方法以外에 經學的 方法이 必要하다고 하고 있다.

國內의 學者들에 依한 東醫壽世保元에 對한 理解의 接近은 이렇게 脈脈히 이어져 오면서 學術的인 繼承으로 師承을 이루고 있으며¹²⁾ 一步의 쉽도 없다.

多幸히도 近世 우리나라에 出生한 後天文化 思想의 創導者¹³⁾ 8분, 즉 崔濟遇¹⁴⁾(水雲, 1824 ~ 1864), 金恒¹⁵⁾(一夫 1826 ~ 1884), 李濟馬(東武 1836 ~ 1900), 羅喆¹⁶⁾(弘巖 1864 ~ 1916), 姜一淳¹⁷⁾(甌山 1871 ~ 1909), 韓龍雲¹⁸⁾(萬海 1879 ~ 1944), 姜大成¹⁹⁾(迎新堂 1889 ~ 1935), 朴重彬²⁰⁾(少太山 1891 ~ 1944)은 易·道·醫의 革命的 新學說과 未來를 豫示한 新道德哲學을 創導케 하였다.²¹⁾

이들은 精神改革의 理念的 基調를 著述하므로 東洋文化의 精髓를 이루고, 人의 口에 膾炙되도록 하여 聖道眞理·精神文化의 師表가 되었다.²²⁾

李濟馬는 醫學者以前에 儒學者이면서 社會·人類·人間의 健康을 爲해 道德哲學을 韓民族의 歷史속에 文明의 遺産으로 著述로 남겼다.

文明의 廻路에서 時代의 進運인지, 多幸히 中國의 朝鮮族 自治州에서 1800年代 「한」 思想²³⁾

의 8분中에서, 唯獨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이 研究되고 있다.

漢字는 深奧한 뜻을 지닌 表意文字다. 가령 「天」을 「하늘」 또는 「천」이라고 써놓으면 天이 內包한 깊은 뜻을 알 수 없다. 天은 一大者, 神, 道 또는 天地人 三位一體를 나타내는 廣汎한 뜻이 있다. 道를 解釋에서 「길」이라고 써놓으면서 道の 참뜻을 알 수 없다. 比喻하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오, 진리오」한 그 길이 道인줄 모르면 이 威大한 眞理의 말씀은 그 뜻이 半減된다.

道는 logos¹⁹⁾, 말씀, 神, 生命, 眞理와 같은 形而上的 表現이다.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은 東武의 道德哲學이 醫學으로 넘어오면서 四象觀의 核을 이루고 있으며, 難解한 易學的인 單語를 使用하면서 四元構造의인 概念을 갖고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의 天機는 就是指宇宙里的所有 矛盾 統一的 整體, 包括 “天時” 即 大同之自然, “地方” 即 地域性環境, “世會” 即 社會, “人偏” 即 人類自身. “天機” 以辨證唯物主義的方法, 概括 3 有機體是 一个在宇宙大自然里的不同環境和社會結構里生存并與之又矛盾, 又統一的整的概念²⁰⁾ 이라고 朝醫學에서는 格義하고 있다.

考察하면, “天機”의 解意에 對해 洪²¹⁾, 金은²²⁾ 大自然의 理法에 있는 機密”, 朴²³⁾은 天地造和로 풀이하고, “地方”의 解意에 對해서는 朴²⁴⁾은 少陰의 西方으로, 洪은 東西南北의 平面世界, 金은 山·野·川이 있는 國土·鄉里의 概念으로 表示하였고, “人倫解意는 洪, 金은 1對1의 單로 맺어진 人間關係”, 朴은 人間이 지켜야 할 道理로 解釋하고 있고 “世會”의 解意는 洪, 金은 社會集團으로 形成된 人間關係, 朴은 世上사람들이 모여서 大

小한 世上事에 對하여 會議를 하는데에 參觀가서 참례하여 보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資料 1)

此考에서 보듯, 用語의 註釋은 國內學者들에게서는 詳細한 편이나, 양갈래의 意見이고, 中國에서의 朝醫學에 나타난 解意는 『人倫는 人類自身』에서 보듯이 多分히 直譯의이다.

尹²⁵⁾은 東醫壽世保元의 難解한 易學的 單語들에 對해 『東武의 觀念의 學理論』으로 認知하면서 東武의 獨特한 特殊理論인 卷一의 性命論, 擴充論, 臟腑論과 卷四의 廣濟說의 5篇은 難念論으로 何等 科學的 價値를 認定할 수 없는 粉飾의 部分에 不過하며 實相은 醫學과는 關聯이 먼 것인데, 이것이 東武의 衛大한 醫學의 創造的 發見을 도리어 흐리게 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李³⁰⁾는 論考에서 四象說의 어휘의 概念·定立을 試論하고, 東武 「格致彙」의 儒略과 反誠箴의 用語를 體系的인 整理를 한다면, 어떠한 새로운 四象說의 法則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傳統을 벗어난 問題들이 殘存하는 것만은 의심의 餘地가 없고, 東武의 四象說에 있어서의 語彙들은 言語學的 의미에 그치지 않고, 四象說의 符號化한 것으로 看做된다³¹⁾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學者들에 難解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또한 비록 哲學的 思惟에서 東醫壽世保元이 成立되었다 할지라도, 東醫壽世保元의 原典과 相異하지 않는 概念으로 把握되어야 할 것으로 思慮된다.

때문에 本 考察을 試圖한 意味도 여기에 있지만, 朝醫學의 直譯 問題點들을 考察하면 위에서 알아본 性命論 序頭以外에도, 다음과 같은 對比 論理가 究明되어진다.

(2) 東醫壽世保元の 醫學的 視學과 解釋

性命論에서 天機·人事의 두 節은 天·人의 不可分離의 天人合一이라는 東洋哲學의 傳統의 思想에 根據한다.³²⁾ 天人相應의 이러한 思想은 自然界의 生命과 人의 生命性 則 自然界의 物象構造와 運動變化가 人體의 內外的 構造 및 運動變化와 항상 相應한다는 것이다.³³⁾ (資料 1~2)

朝醫學에서도 “人間과 自然, 社會는 宇宙 大 自然속에서 生存하며, 그것과 矛盾하면 存在하는 統一의 整體概念으로 把握하면서, 有機가 自然과 社會의 平衡破壞는 疾病이 發生하는 病因 中の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天人相應의 論理에 說明하고 있다.³⁴⁾

朝醫學에서의 直譯은 이 句節에서
《人事; 바로 사회구성과 모순 統一의 有機體.》
居處; 衣食住
黨與; 社會 其他 구성원과의 結成
交遇; 社會 其他 구성원과의 往來關係
事務; 社會生活에서 책임지고 있는 分業
(노동, 사업, 지위)

위와 같이 翻譯하고 있다.

洪, 李는 居處란 人間生活의 據點, 黨與는 血緣關係, 交遇는 交遇關係, 事務는 日常生活로 解析하고 있고, 韓³⁵⁾은 天機, 四大特徵이 있어서 그것을 中軸으로 하고 人間이나 萬物이 誕生하는 故로 人間事도 이 範疇에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考察하면 天·人 關係를 形而上者, 形而下者로 파악하면서 相應關係를 유지하고 있다고 共通認知하고 있으나 朝醫學에서는 單純 翻譯意志가 듯보인다.(資料 2~3)

그러나 天人關係는 「人間은 小宇宙」라는 天人合一論과는 東武의 天時는 大同也, 人의 個體는 各立也라는 論理를 볼때 天人相應論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資料 3)

性命論을 볼때 天地精神이 運行하고 대로 運行하는 것이 바로 生理의 精神活動이며, 天機로서 바탕을 받은 것이 人間自體라는 立場을 堅持하면서 出發한 것이므로, 自然變化인 宇宙論에서부터 解說하지 않고서는 四象原理를 理解할 수 없는 것이다.³⁶⁾

人間은 天地精神을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에서 받아가지고 頤臆臍腹과 頭肩腰臀에서 行하게 되므로서 水降火升하는 宇宙의 變化와 같이 陰陽 變化가 人體內에서 順調롭게 形成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類推하면, 四象論에서는 天機와 人事는 물론 性과 命, 知와 行, 好善과 惡惡, 上升과 下降, 輕清과 質重, 哀怒와 喜樂, 上焦와 下焦 등이 對待關係로 되어 있다.

이러한 原理를 朝醫學에서는 單純히 人間의 有機體 各 器官은 進行하는 機能과 活動이 完全히 平衡을 維持해야 하고, 이러한 平衡이 일단 파괴되면 有機體는 疾病을 發生하게 되는 것³⁷⁾ 이라고 有機體의 全一概念으로만 보고 있다.(以上 資料 4~10).

資料(11~14)의 解意에 있어서도 朝醫學은 이러한 內容은 有機體 生存觀으로 集約 說明하면서, ‘有機體가 生存하는 外的條件은 매우 복잡한 것이며, 有機體變化的 外的要因을 일으키는 것은 天理의 變化인 까닭에 五官을 通過하여 天理의 變化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朝醫學의 直譯을 2·3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朝醫學 有機體 生存觀에서)

例Ⅰ. 天時極蕩也, 世會……地方極邈也.

解; 天時는 대단히 넓고, 世會는 대단히 크며, 人倫은 광활하며, 地方은 매우 멀다.

例Ⅱ. 太少陰陽之臟局……天理之變化也.

解; 太少陰陽의 臟腑는 4가지 다른것 中

에서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며 天理의 變化이다.

例Ⅲ. 人之耳目口鼻天也…… 口味地方.

解; 사람의 耳目口鼻는 하늘이고, 하늘은 안다. 귀는 天時를 듣고, 눈은 世會를 보며, 코는 人倫을 냄새맡고, 입은 地方을 맛본다.

朝醫學은 위의 3例文의 解說에서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有機體는 生存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朝醫學에서 直譯으로 派生된 單純論理이며, 性命論 解釋의 問題點이라고 思慮된다.

資料(15, 16, 17)에 나타난 朝醫學에 말하고 있는 四象醫學陰陽論은 대체적으로 原論에 忠實한 解釋을 하고 있다.

그러나 問題點은 人稟臟理의 四元構造的 原理가 喜怒哀樂의 性情에 依하여 先天的으로나 後天的으로 支配되고 있다는 四象說의 가장 緊要한 性情論의 要諦(資料16)를 단순히 陰陽論的 對待關係로 把握하고 있는 點이다. 이것은 天機와 人事, 耳目口鼻, 肺脾肝腎, 領臆臍腹, 頭肩腰腎이 相應하고 喜怒哀樂의 性情과 같은 系統으로 相應하고 있는 相應循環理論으로 解析됨이 마땅하다고 論하고 싶다.

朝醫學의 四行論에 보면, 모든 心身事物과 그 부분들은 陰陽으로 區分되고 五行으로 歸數되는 相生相克의 陰陽五行關係로의 接木勞力이 多分히 보인다.

물론 自然의 時空間構造와 人間의 時空間構造가 同一한 樣態를 갖는다는 것은 傳統韓醫學에서의 運氣論으로 基存韓醫學의 뿌리라 하겠으나, 朝醫學에 나타난 木火金水, 春夏秋冬, 生長收藏, 精神氣血과의 圖式化³⁸⁾의 說明은 朝醫學의 說明처럼 四象醫學이 獨占하고 있는 四行規則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思慮된다.

(資料18)

또한 相互資生, 相互制約의 論理로 四象人의 耳目口鼻, 肺脾肝腎, 地方人倫世會天時사이 및 居處 黨與 交遇 事務 사이에는 相生相克의 關係가 形成되고 있으며, 이것이 四象人의 四行規律이라는 解釋³⁹⁾도 『四元構造的 統一이라는 概念』으로 “東武의 四象說을 構造的 樣相으로 理解하려는 國內學者들과는 全然 다른 面을 보이고 있다.

V. 結 論

연변동포들이 朝鮮民族醫藥研究所를 設置하고, 東醫壽世保元을 역·편출간한 思想醫學論을 研究한 결과 다음과 같이 結論된다.

1. 그들이 民族思想의 脈으로서, 東醫壽世保元을 民族醫藥學 遺産으로 發掘收集하는 研究의 노력은 價値를 認定할 수 있으나 주석의 方法에서는 多분히 지역적이어서 단순번역의 지가 勿 보인다. 때문에 원전에 충실하게 그 基本思想을 把握하고자 했는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2. 卽 李濟馬의 思想觀을 토대로한 諸概念들의 理論的 基底에는 李濟馬의 道德哲學이 醫學으로 넘어오면서 經學的, 哲學的인 난해한 용어로 人類, 社會, 個人(個體)의 健康論이 人體의 四元構造와 結合됨으로서, 複合四象構造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朝醫學에서의 東醫壽世保元에 대한 理解의 接近은 天(하늘), 人(사람)의 不可分離의 天人合一이라는 東洋哲學의 宇宙論思想에 人間, 自然, 社會는 宇宙大自然속의 整體概念(유기체의 全일개념)으로 把握되고 있다.

3. 특히, 朝醫學에서의 問題點은 인품정리의

四元構造的 原理가 집약된 四象說의 가장 緊要한 要諦라할 수 있는 性情論을 단순히 陰陽論的 對待關係로 解析하면서 相互資生, 相互制約의 陰陽五行論的 關係로 歸類시키는 接木勞力이 多分히 殘存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므로 “四元構造的 統一이라는 概念”으로 李濟馬의 四象說을 人體의 複合的인 構造的 樣相으로 理解하려는 國內學者들의 相應循環理論인 승강론과는 전혀 다른 方法으로 理解되고 있다.

註 釋

1. 朝醫學 p.9.
2. 上揭書 p.11.
3. 宋一炳, 四象醫學의 構造的 說明方法의 考察, p.1.
4. 洪淳用, 四象醫學의 基本原理 p.4 (東洋醫學 第13卷 第2號 第37號)
5. 大韓韓醫學會誌, Vol.12, No.2, 1975. p.31.
6. 吳世井의 四象醫學研究方法論 序述에서
7.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 p.18.
8. 宋正模, 「性命論」을 中心으로 한 李濟馬의 四象觀에 對한 考察, p.12.(慶熙大學校 大學院)
9. 李濟馬著 朴奭彥譯, 格致彙, p.3.
10. 李乙浩의 東武四象說의 經學的 基調의 論文中.
11. 宋一炳, 四象醫學의 四端七情論에 對한 考察.
12. 慶熙大, 圓光大 大學院에서의 研究.
13. 1800年代 우리나라의 精神文化의 뿌리를 尋하고 있는 創導者를 칭함.
14. 東醫思想 創導理念.
15. 正易 創導者.
16. 大倣教 重興.
17. 無極大道理念.
18. 佛教維新.
19. 更定儒道者.
20. 圓佛教 創導者.
21. 이들의 出生年代는 우연히도 1800년대로 우리나라의 歷史上 이렇게 많은 新理論들이 創導된 바는 없었다. 따라서 이 年代以後, 天運이 韓國을 世界의 教主되게 하고 있다고들 말하기 시작하였다.
22. 韓宙鑿著 天地人眞理經의 後記文論旨.
23. 檀君聖祖의 思想을 말하나, 광범위로는 한 민족 思想도 內包되고 있음.
24. 理性, 法則, 論理, Stoa 學派에서는 宿命的·必然的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神.
25. 朝醫學 p.12-13.
26.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 p.5.
27. 金敬堯, 東醫壽世保元中 性命論에 對한 研究.
28. 朴奭彥著 四象大典 p.13.
29. 尹吉榮著 四象體質醫學論 p.172.
30. 李乙浩(前 全南大學 教授).
31. 李乙浩, 東武四象說의 經學的 基調論文中. 四象說의 語彙의 問題에서.
32. 東洋醫學 第13卷 第2號 第37號 p.7.
33. 泄圭鏞, 四象醫學과 基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關한 研究中에서.
34. 朝醫學 p.12-13.
35. 國東錫著 東醫壽世保元 譯釋 p.15.
36. 吳世井의 四象醫學 研究方法論中에서.
37. 朝醫學 p.13-14.
38. 上揭書 p.18.
39. 上揭書 p.19.

參 考 文 獻

1. 朴奭彥著, 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1977.
2. 李濟馬著, 朴奭彥譯, 格致彙, 서울, 太陽社, 1985.
3. 尹吉榮著,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明實出版社, 1986.
4. 韓東錫著,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5.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9.
6. 韓宙馨著, 天地人眞理經, 서울, 三一大道學會, 1985.
7. 延邊朝鮮族自治州 民族醫藥研究所, 朝醫學, 中國, 1985.
8. 金敬堯, 東醫壽世保元中 性命論에 對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1, No.1, 1989.
9. 宋一炳, 四端七情論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Vol.16, No.1, 1980.
10. 宋一炳, 四象醫學의 構造的 說明方法의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1975.
11. 宋正模, 性命論을 中心으로한 李濟馬의 四象觀에 對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8.
12. 李乙浩, 東武四象說의 經學的基調, 黃帝醫學 Vol.2, No.2, 1977.
13. 吳世井, 四象醫學의 研究方法論, 大韓韓醫學會誌, Vol.12, No.2, 1975.
14. 泄圭鎔, 四象醫學과 基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Vol.1, No.1, 1989.
15. 洪淳用, 四象醫學의 基本原理, 東洋醫學, Vol.13, No.2, 1987.